**THE ANGRY MAN**

Short film

Directed & Screenplay

By

Hyunyong Park

Copyright 2013-2014

BLACK SCREEN

*Not far from future*

Fade in :

**#.1 INT. 화장실 변기 칸 - 밤**

흰색 페인트가 칠해진 화장실 변기 칸 안. 벽면은 낙서 하나 없이 깨끗하다.

무표정의 **정헌철(60, 흰 머리카락, 붉은색 계통 옷, 항상 조금씩 입을 열고 있는 상태, 절름발이)**이 펜을 쥐고 변기에 앉아 있다. 거친 그의 손. 펜을 들고 있는 *그의 왼손 중지에 펜을 많이 쥐어서 생기는 굳은살*이 보인다. 깨끗한 화장실 안을 눈으로 둘러보는 정헌철.

정헌철이 펜의 뚜껑을 열고 정면 화장실 문에 음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Fade out :

Title on \_ THE ANGRY MAN

**#.2 EXT. 버스 정류장 – 밤**

CCTV가 설치되어있는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 뒤쪽에 맨홀 뚜껑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남자 2명과 여자 2명(엑스트라들은 모두 이런 스타일로 통일 / 모두 뚱뚱한 체형, 남자들은 반듯한 8:2 가르마, 여자는 머리를 뒤로 묶어 올린 상태. 검은색 정장 복장)**이 줄을 선 체 정헌철을 무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다. 정헌철이 그들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서 있다가 그들의 눈초리에 그들 사이의 줄로 들어가 선다. 사람들이 다시 고개를 숙이고 자신들의 스마트폰을 본다.

정헌철이 앞 뒤로 서 있는 남자와 여자들을 힐끔 쳐다본다. 자로 잰듯하게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은 무표정으로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다. *스마트폰에는 소용돌이치는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마치 최면을 유도하는 듯하다.*

정헌철이 길 건너편에서 벽면에 낙서들을 흰색 페인트로 칠하고 있는 **두 남자(검은색 작업복/방사능에서 일하는 사람처럼)**를 바라본다. 그림자로 인해서 그들의 모습은 어둡게 보이고 벽면에 그림만이 불빛으로 보인다. *벽면에 그려진 여자와 남자의 성행위 낙서가 지워지고 있다.* 남자 중 한 명이 흰색 페인트로 칠 한 곳 위에 *붉은색 금지사인* 도장을 찍는다.

버스가 도착한다.

**#.3 EXT. 아파트 전경 – 밤**

아파트의 전경.

**#.4 INT. 정헌철의 아파트 문 앞 - 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정헌철이 나온다. 정헌철의 동작에 따라 천장에 붙어 있는 CCTV가 움직인다.

정헌철이 현관 앞에 놓여 있는 *작은 검은 상자*를 발견한다. 정헌철이 무덤덤하게 검은 상자를 든다. 그리고 천장 한쪽에 설치된CCTV를 바라본다. CCTV에서 깜박이는 빨간 점을 쳐다보는 정헌철. 이내 고개를 숙이고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간다.

**#.5 INT. 정헌철의 집 주방 – 밤**

구형 냉장고만이 덩그러니 놓여있는 주방.

정헌철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몸통만 화면에 잡히는 상태. 집 한쪽 구석에는 현관에 있었던 모양과 똑같은 상자들이 열려서 비워진 체 버려져 있다. 그곳에 현관에서 들고 왔던 상자를 버리는 정헌철. 그리고 오래된 구형 냉장고 앞으로 간다.

냉장고를 열자 냉장고 안에 똑같은 모형의 스마트폰들이 쌓여 있다.

*이때 사이렌이 울린다.*

냉장고에 현관에서 들고온 스마트폰을 넣고 문을 닫고 거실로 향한다.

**#.6 INT. 정헌철의 집 거실 – 밤**

블라인드를 통해서 들어온 창밖 불빛으로 사선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방. 창밖으로는 어두운 도시의 모습과 함께 도심 한가운데 우뚝 솟은 파놉티콘(panopticon)의 모습이 보인다. 벽에 있는 창문은 삐뚤어져 있다. 거실에는 책장과 전신 거울이 세워져 있다.

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는 정헌철. 카메라가 뒤로 빠지면서 방 한쪽 구석에 텔레비전이 있고 그 위에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것이 보인다. 정헌철이 텔레비전 앞에 선다.

텔레비전이 켜지면서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가 수갑을 차고 경찰에 의해서 잡혀가고 있다. 잡혀가고 있는 남자는 “정신병자 살인범”라 소개하고 있는 화면 속에서 남자의 중지 손가락의 굳은살을 정헌철이 발견한다.

**#.7-1 INT. 화장실 – 밤**

정헌철이 전날에 낙서했던 화장실 칸 앞에서 몸을 낮추고 안을 바라본다. 안에는 남자의 발의 모습이 보인다.

잠시 후 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난다. 정헌철이 다시 일어나서 화장실 칸 앞쪽에 서 있는다. 왼손이 검지와 엄지를 붙였다 폈다를 반복하며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정헌철.

화장실 칸에 문이 열린다. 금지사인 도장을 들고 서 있는 **남자(35).**  남자의 얼굴은 그림자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다. 정헌철이 고개를 숙인다. 남자가 화장실에 나가서 떠나자 정헌철이 화장실 칸 안으로 들어간다.

**#.7-2 INT. 화장실 변기 칸 – 밤**

깨끗하게 지워져 있는 화장실 변기 칸에는 금지표시가 그려져 있다. 정헌철이 주머니에서 펜을 꺼낸다. 정헌철이 다시 벽면에 음란한 그림을 그리려는 순간, 기계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다.

정헌철이 고개를 들어 화장실 변기 칸 위쪽을 바라본다.

CCTV가 설치되어 있다. 빨간 불을 깜박이는 CCTV.

정헌철이 조심스럽게 펜을 주머니에 넣는다.

**#8-1 EXT. 지하 건널목 – 밤**

지하 건널목 계단을 내려가는 정헌철.

**#.8-2 EXT. 지하 건널목 - 밤**

사람이 다니지 않는 지하 건널목.

정헌철이 펜을 들고 혼자 지하 건널목을 건넌다. 건널목 한가운데서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는 정헌철. 자신이 들고 있는 펜을 한참을 바라보다 건널목 한쪽에 놓아두고 떠난다.

**#9 EXT. 횡단보도 – 밤**

자로 잰 듯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들과 어린 여자아이**가 서 있다. 모든 사람의 고개를 숙이고 무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다. 스마트폰에는 마치 최면을 거는 듯이 똑같은 형태의 소용돌이 패턴에 나오고 있다. 그들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다. 정헌철의 그림자가 그들의 그림자 옆에 들어온다.

정헌철이 그들 옆에 서서 횡단보도를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35, 검은색 제복, 검은색 라이방 선글라스)**이 호루라기를 입에 물고 서 있다.

정헌철이 자신 옆에 엄마에게 손을 붙잡히고 서 있는 여자아이를 바라본다. 여자아이의 손에 자신이 매일 같이 받고 있는 검은 상자가 들려있다.

잠시 후 빨간 불이 파란불로 바뀐다. 교통경찰이 호루라기를 불고 사람들이 발과 열을 맞추어 횡단보도를 건넌다.

횡단보도를 다 건넌 정헌철과 사람들. 신호가 다시 빨간 불로 바뀐다. 여자아이가 엄마의 손에 끌려가다가 뒤돌아 정헌철을 쳐다본다.

*슬로우 모션 : 정헌철과 여자아이가 시선을 마주친다.*

아이의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아당긴다. 여자아이가 고개를 다시 돌리고 멀어진다.

정헌철이 한참을 여자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정헌철이 항상 살짝 열고 있던 입을 지긋이 닫는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횡단보도 앞에서 서는 정헌철.

신호등의 빨간 불과 호루라기를 물고 있는 경찰의 모습을 번갈아 쳐다본다. 정헌철이 주위를 돌아보니 신호를 건너기 위해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본다.

횡단보도 앞에 그들과 함께 서 있던 정헌철이 횡단보도 앞으로 한 발 짝 움직인다. 스마트폰을 보던 사람들이 정헌철의 움직임에 다들 횡단보도를 건너려다가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자 신호등의 빨간 불을 보고 다시 뒤로 물러난다. 정헌철만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있다.

경찰이 정헌철을 바라보고 손가락으로 정헌철을 가리킨다. 정헌철이 천천히 빨간 불의 신호들을 건넌다. 경찰이 호루라기를 연신 불고 있다. 스마트폰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정헌철을 바라본다.

정헌철이 횡단보도를 건넌다.

**#.10 EXT. 지하 건널목 – 밤**

정헌철이 버렸던 펜을 다시 집어 들고 사라진다.

**#.11-1 INT. 화장실 – 밤**

정헌철이 항상 그림을 그리는 화장실 칸 앞.

**#.11-2 INT. 화장실 변기 칸 – 밤**

정헌철이 화장실 칸에 앉아 있다. 펜을 든 자신의 손과 중지 손가락에 굳은살, 그리고 금지사인을 바라보는 정헌철.

**정헌철이 고개를 들어** CCTV의 깜박이는 빨간 불을 바라본다.

그리고 CCTV 앞에서 펜의 뚜껑을 연다.

*정헌철이 천천히 CCTV를 바라보며 험악한 인상을 쓴다.*

금지사인을 여성의 성기로 묘사하는 음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정헌철.

CCTV의 빨간 불이 깜박인다.

**#.12 INT. 빈 공간**

빈 공간에 정헌철이 사용하던 펜이 놓여 있다. 누군가의 군화가 펜을 밟아 부순다.

**END.**